

“기회나 무덤이나”... 孫 영수회담 고민

“진정성 보인다면 국회 정상화 위해 필요”

남북 문제·전세난·일자리 등 의제 될 듯

여야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성사 시 가세를 파장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손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갈구할만한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운영 방향과 야당과 국회를 대하는 일방적 태도를 봤을 때는 부담만 있고 소득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기회’이기 보다는 ‘무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회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의회주의자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등원을 위한 명분을 여야 영수회담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비록 부담이 크지만 회담에 응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 1일 설 귀향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은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영수회담을) 거부할 리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10일 “대표는 영수회담을 구결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가 회담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회정상화를 위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가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영수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손 대표 측의 첫 고민은 회담에 임하는 태도다. 일단 12·8 예산안 파동 후 두 달 넘게 장외 투쟁을 계속해온 만큼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기 위해 ‘강하게’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12·8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강하고 강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또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과 각을 세우야 하는 시적적 측면에 비춰볼 때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9월 전임 정세균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회동한 뒤 나온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청와대의 반응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던 것도 손 대표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고민은 접점 없이 걸도는 회담이 될 경우다. 민생과 남북문제 등에 있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야당 지도자로서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남북문제와 전세난·구제역·일자리 등 민생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영수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관측은 많지 않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 상 뚜렷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은 것



눈 감은 손학규 10일 경북 경주지역 희망대장정에 나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경주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시민토론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다. 때문에 손 대표 측은 회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차명 대변인이 ‘손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등원 이전에 영수회담이 있어야 하고 그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영수회담과 관련

한 손 대표의 마지막 입장 발표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언급했을 때가 마지막”이라며 “영수회담과 관련해 손 대표는 사전 전체 조건이어야 하고 그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영수회담과 관련

손학규 반론 직담회
민주, 방송사에 요청

민주당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와 같은 수준으로 손학규 대표와의 좌담회를 열어 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고 당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론권 차원에서 이 대통령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동시 생방송 형태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방송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로부터 아직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수회담 등 정국 현안 공감대 찾기

김무성-박지원 회동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저녁 회동, 정국 정상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근현,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 영수회담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 민주당

측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한나라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성사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개헌 문제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우선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회동은 한나라당의 개헌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헌, 영수회담, 구회 정상화 등 정국 현안과 관련, 상당한 공감대 및 합의점이 도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관계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의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정가 라운지

장병완 국회 예결위 간사에 선임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서갑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위원에 10일 선임됐다. 장 의원의 이번 예결특위 간사위원 선임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 오랜 기간 예산관련 부처에서 일해 온 예산 전문가로서의 경력 등을 민주당 지도부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국회 예결특위가 무력화된 힘든 시기에 간사위원에 선임돼 책임감이 무겁다”라며 “33년 예산분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독단적 예산운영 행태를 저지하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향 호텔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광주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에 맞서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재(광주 NGO시민재단이사장), 최영태(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장현(YMCA이사장),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용화(광주민주노동자회 공동대표), 황정아(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대표)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0일 “당내 경선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을 이유로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가 우대 가산점을 받아 공천될 경우 ‘경선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선 참여자들이 탈당해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상당수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상당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은방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0일 이은방 의원(민주·북구 6)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고 기회균등과 소수자 참여 보장 되도록 해 지역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개헌 이미 사망선고, 민생 매진을”

안상수 “국민공감대 이뤄 개헌 완수할 것”

한나라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민생 매진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한나라당 친이계 주도의 개헌 논의와 관련, “불필요한 개헌의 불씨를 살릴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문제를 위한 국회 특위가 구성돼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가 사용도 못하고 이를 만에 끝난 것을 보고 이제 국민의 관심이 어찌될지 우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개헌 얘기는 없었고 어떻게 하면 물 흘러가듯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했다”며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지금 국면은 한나라당의 개헌 놀음에 민주당의 복지 대결”이라며 “한나라당은 구제역, 전세난, 물가, 일자리 등 민생 4대 대안 속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있는 개헌 문제는 사실상 사망선고에 난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을 놓쳤다”며 “당내 합의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실정 무마용, 정권 연장용 개헌을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개헌 추진과 관련,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논의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심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 서 모아진 중지에 따라 최고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 개헌특위의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수년간 유학으로 단련된 입구정인들이 영어회화가 유창하도록 교육합니다

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IBT 방식 평가는 화상첨반반식인 입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리딩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과 1:1 독해 · 문법 강의를 한다
결론은 **多讀, 多聽, 多習**이다

선생님이 회화가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수있다!

- 초, 중, 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 교수님, 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어민 1:1 입구정영어회화 · 리딩
ah-english.com 070-7433-0594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 잔여석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 · 축산인 · 임업인 특별혜택★

- ◆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약박사, 윤종하(전)풍관원, 초대농부사업협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학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규기관 3층 305호
-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지역지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설계/학원/지도원, 지식산업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지	4년제 대학 학위(학사 또는 대학원)를 졸업하고 개발업인력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 중 개발업 관련 총서사,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원 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부 원 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ed.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판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강)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 초급	3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 고급	3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사주명리고급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2월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2월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